

일본 소각로 20만개...교내시설 모두 없애

일본은 세계 1위의 '소각 대국'이면서 대표적 실패 국가로 꼽힌다. 도시의 대형 소각장만 세계 주요국 총 시설 수의 절반이 넘는다. 70~80년대 오일쇼크 당시 '쓰레기 소각열을 난방과 발전에 이용하자'며 전국에 소각장을 세운 탓이다. 전국의 소각로는 공식 확인된 것이 6만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형까지 더하면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부성은 97년 각급 학교 안의 쓰레기 소각로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다이옥신 등이 학생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 3만9183개교 가운데 83%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

이에 앞서 '도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83년 에히메 대학의 연구결과를 비롯, 다이옥신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가 국내·외에서 쏟아졌다. 정부는 90년 '가이드라인'을 제정, 신설 소각로의 배출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모두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 수조 연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옥신 이외에 소각 잔류물도 고민거리다. 오사카 시민네트워킹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는 "엄청난 양의 최종 잔류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실용화되지 않아 결국 매립 처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립 역시 최선책이 아니어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일본-공공건설사업 평가제 시행

일본 국토교통성은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실시요령을 마련했다.

국토교통성은 중앙청청 재편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대부분을 맡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착된 폭넓은 정책 전개를 위해 이같이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이미 각 프로젝트마다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정부사업을 총괄하게 된 국토교통성이 일괄적인 실시요령을 마련, 한층 충실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실시요령을 마련했다.

국토교통성은 중앙청청 재편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대부분을 맡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착된 폭넓은 정책 전개를 위해 이같이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이미 각 프로젝트마다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정부사업을 총괄하게 된 국토교통성이 일괄적인 실시요령을 마련, 한층 충실해지게 됐다.

지게 됐다.

특히 예산, 세제, 법률 등의 신규시책을 실시하거나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목표를 제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유효성, 효율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요령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예산, 규제, 세제, 재정투·융자, 법령 등 모든 시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 실적측정, 프로그램 평가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실시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정책 및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를 체크, 국민에게 신속하게 설명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개선하고 있지않거나 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평가는 실시중인 시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 과제와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구 상공 3만6천km 높이의 정지궤도에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를 갖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으로 무공해 전력을 공급받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2040년 실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경제산업성 항공·무기·우주산업국의 다케노우치 오사무 국장은 지난 1월 31일 AFP 통신 회견에서 "2001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태양열 발전 인공위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뒤 2040년께 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2040년 태양열발전소 건설 추진

일본이 지구 상공 3만6천km 높이의 정지궤도에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를 갖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으로 무공해 전력을 공급받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2040년 실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경제산업성 항공·무기·우주산업국의 다케노우치 오사무 국장은 지난 1월 31일 AFP 통신 회견에서 "2001년 4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태양열 발전 인공위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뒤 2040년께 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케노우치 국장은 "지구 표면에서는 구름에 태양광이 흡수되면서 태양열 발전 효율이 떨어지지만 우주공간에서는 밤중에도 풍부한 태양열을 이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태양열 발전 위성체의 발전량을 초당 100만kW로 설정,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체는 약 3km에 달하는 집열판을 장착한

거대한 패널 2개를 날개 모양으로 장착하고, 패널 사이에는 직경 1km 크기의 전력 송신용 안테나를 갖춘 형태로 설계된다.

스위스,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10% 감축

스위스 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오는 2010년까지 1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장관을 겸하는 모치르 로이엔버거 대통령은 이날 수도 베른에서 '에너지스위스'로 명명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계획에는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규제장치와 이산화탄소 세제 등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장래에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3천313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